

학	과	문화인류학과
학	번	202413568
이	름	유 빛나

비극적 분단의 역설적 생태보고:
철원 DMZ의 공생 가치와 문화적 재발견
영춘맷기 중간보고서

목 차

I. 서론

1. 지역 및 주제 선정이유 3p
2. 철원 DMZ의 과거-현재의 배경 4p
 - 한반도의 허리, 풍운의 도읍지
 - 1930년대: 강원도 4대 도시의 위용과 근대화의 정점
 - 6.25 전쟁과 분단(사라진 마을, 멈춰버린 시간)
3. 타 DMZ와의 비교를 통한 철원 DMZ의 독보적 스토리 5p

II. 본론

1. 철원 DMZ의 생태적 형성 배경과 역사적 단절이 빚어낸 대자연 6p
 - 역사적 단절이 가져온 생태적 풍요 (군사적 고립과 공간적 저지, 그 생태적 복원)
2. 철원 DMZ가 만들어낸 지역 관광문화 7p
 - 안보 관광에서 생태 평화·관광으로의 변환 (군사시설 중심에서 생태 체험으로의 변화)
3. 철원 DMZ의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미래 비전 9p
 - 철원 DMZ와 주민들의 상생,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III.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철원의 가치와 공생의 미래 12p

IV. 참고문헌

- 참고문헌 13p

I. 서론

1. 지역 및 주제 선정 이유

철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는 분단의 최전선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단절의 시간이 공간의 시간을 멈춰 생태계의 보물창고를 탄생시킨 지역이다. 비극적인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땅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자연의 생명력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역설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강원연구원 이영길 저자의 ‘글로벌 DMZ, 세계적 명소화를 위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들어 남북협력 사업, 금강산육로관광 등 DMZ 주변 지역의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비한 중심지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60년 동안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DMZ의 생태 자원에 대한 세계적 관심 또한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철원은 현재 안보 관광의 상징적 장소를 넘어 세계적인 생태 및 평화의 명소로 도약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단순한 철원 DMZ의 전쟁의 아픔과 딱딱하고 삭막한 공간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철원의 현재와 미래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강원도만의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유일한 한국의 역사 부분의 독보적 서사라고 생각하여, 단절이 빚어낸 생태적 풍요라는 기묘하고도 신비한 역설을 통해, 철원이 지닌 인류학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공존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철원 DMZ의 과거-현재의 배경

○과거

철원은 오늘날의 조용한 접경지역 이미지와는 달리,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서 가장 역동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강원도민일보와 통일부의 자료에 따라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한반도의 허리, 풍운의 도읍지

지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철원은 예로부터 사통팔달의 요지였다. 과거 궁예가 통일 국가를 꿈꾸며 태봉국의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자, 광활한 철원 평야를 품은 강원도 최대의 곡창지대로서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았던 지역이다.

2. 1930년대: 강원도 4대 도시의 위용과 근대화의 정점

일제강점기인 1914년 경원선(서울-원산)이 개통되면서 철원은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급성장했다. 1930년대 철원의 인구는 약 8만명에 달해 춘천, 원주, 강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원도 내 가장 변화한 도시 중 하나였다. 당시 철원역은 5만평 규모에 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정도로 거대한 철도 요충지였으며, 지역 내에는 34개소에 달하는 관공서와 금융기관, 교육기관, 강원도립 철원의원, 심지어 극장과 시장까지 갖춰져 있어 사람과 물산이 끊임없이 교차하던 근대 상업도시였다.

3. 6.25 전쟁과 분단 (사라진 마을, 멈춰버린 시간)

1950년 6.25 전쟁 당시 이른바 ‘철의 삼각지’라는 치열한 격전지가 되며 운명이 뒤바뀌었다. 강원도 최대 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전투 끝에, 화려했던 도시 흔적은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다.

휴전선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면서 철원역은 풀숲에 뒤덮인 선로의 흔적만 남긴 채 멈춰 섰고, 마을 사람들은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 현재 민통선 내에는 총탄 흔적이 선명한 ‘철원 농산물 검사소’와 무너져 내린 ‘얼음창고’, 옛 군청사 터 등 파괴된 건축물만이 남아 당시의 영화로웠던 시절과 전쟁의 참혹함을 동시에 증명하고 있다.

○현재

과거의 화려했던 도시 번영이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정지된 지 어느덧 70여 년이 흘렀다. 서론의 ‘지역 선정 및 주제 선정 이유’에 작성된 글처럼, 철원의 민통선과 DMZ 일대는 가로막힌 땅으로, 역설적으로 그 내부에서는 거대한 생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과거 전쟁의 포화가 휩쓸어 폐허가 되었던 자리가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채 자연 스스로의 자정 작용을 거치며, 한반도에서 가장 원초적인 생태계를 품은 ‘보물창고’로 탈바꿈한 것이다.

현재 철원은 전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매년 찾아오는 국내 최대의 월동지가 되었고,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생태계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의 치열했던 전장은 현재 풍요로운 생태계로 탈바꿈해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진다. 철원을 단순히 전쟁의 폐허로만 보기에선, 그 땅이 품은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철원 DMZ의 생태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안보 관광에서 평화생태관광으로 변화하는 현장의 흐름을 살펴보며 그로 인한 철원에 대한 관광객들의 시각 변화와 지역주민들에게 끼쳐지는 영향과 삶까지의 심도있는 연구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3. 타 DMZ와의 비교를 통한 철원 DMZ의 독보적 스토리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DMZ중에서도 철원 지역이 갖는 위상은 타 접경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독보적으로 드러난다. 첫째로 파주나 연천 등 서부 전선의 DMZ는 인간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자연 그대로 방치된 '폐쇄적인 생태계'라면, 철원 DMZ는 민통선 내 드넓은 철원평야를 무대로 삼는다. 이곳은 가을 수확 후 남겨진 별집과 낙곡을 먹기 위해 전 세계 희귀 조류인 두루미 떼가 찾아오는 곳으로,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인간의 농업 활동과 야생의 생존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유일무이한 '인간-자연 공생형 생태계'를 보여준다. 또한 양구나 고성 등의 DMZ가 깊고 험준한 산악 지형 자체로 접근을 거부하는 단절의 공간이라면, 철원은 사방이 탁 트인 광활한 평야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분단선이 그어져 있다. 즉, 지리적으로는 소통과 흐름에 가장 최적화된 벌판이 역설적으로 가장 단단히 닫힌 국경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DMZ가 6.25 전쟁이라는 남북 대립의 현대사만을 품고 있는 반면, 철원 DMZ의 정중앙에는 천년전 삼국통일을 꿈꾸었던 궁예의 '태봉국 도성 터'가 간혀 있다. 지뢰밭과 군사적 대치라는 비극 덕분에 그 누구도 밭을 들이지 못해 천년의 고대사가 타임캡슐처럼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철원 DMZ는 단순한 자연 보존 구역이나 안보 관광지를 넘어, 인간의 삶과 고대 및 현대의 역사가 생태와 입체적으로 공존하는 한반도 최고의 역설적 문화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II. 본론

1. 철원 DMZ의 생태적 형성 배경과 역사적 단절이 빚어낸 대자연

○ 역사적 단절이 가져온 생태적 풍요(군사적 고립과 공간적 저지, 그 생태적 복원)
 위 '서론'에서 바라본 철원은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이자 사통팔달의 요지, 그리고 태봉국의 도읍지라는 찬란한 역사를 품고 있었으나, 6.25 전쟁 당시 '철의 삼각지'라는 치열한 격전지가 되면서 가장 깊은 전쟁의 상흔이 남겨진 땅이 되었다. 화려했던 근대 상업도시의 흔적은 한순간에 폐허가 되었고, 뒤이어 설정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적 통제는 인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적 단절과 군사적 고립은 역설적으로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연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지뢰 지대의 위험성과 삼엄한 통제로 인해 인간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면서 70년 동안 공간의 시간이 멈추게 되었고, 철원 특유의 현무암 지질과 드넓은 평야, 습지는 인위적 교란 없이 스스로 자정 작용을 거칠 수 있었다. 심지어 군사 활동 중 발생한 빈번한 산불조차 울창한 산림 대신 2차 천이 단계의 개방된 초지를 형성하며 고라니와 노루 등 초식동물에게 천혜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생태적 복원의 원천이 되었다. 이처럼 인간이 다가갈 수 없었던 단절의 세월 속에서, 철원은 전쟁의 참혹한 포화 대신 한반도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대자연의 생명력을 다시 피워내게 된 것이다.

실제로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조사자료를 종합해 보면 비무장지대 일대의 조류는 총 263종에 달하며, 그중에서도 철원군은 162종의 조류가 출현하여 DMZ 전 구간 중 가장 압도적인 다양성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철원의 넓은 평야와 습지가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종들에게 최적의 월동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결론적으로 철원 DMZ는 남북 방향의 백두대간 생태축과 교차하여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동서 생태축으로서, 분단이 가져온 물리적 통제가 70년의 시간을 거쳐 원시 상태로의 회귀를 가능케 한 인류학적 생태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2. 철원 DMZ가 만들어낸 지역 관광문화

○ **안보 관광에서 생태·평화 관광으로의 변환 (군사시설 중심에서 생태 체험으로의 변화)**
 위와 같은 역사적 단절과 자연의 자생적 회복이 맞물려, 철원 DMZ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전쟁의 상흔이 역설적으로 생태계의 보고를 만든 생태학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실제로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DMZ 일대 조류 263종 중 철원군에 서만 무려 162종이 관찰되며 전 구간 중 압도적인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철원의 넓은 평야와 청정 습지가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들에게 지구상 최고의 월동 공간이자 생태계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안보관광 예시 모습	생태 평화관광 예시 모습
 <p data-bbox="300 1164 727 1189">출처: 투어비스 서울 출발 철원 DMZ 소그룹 투어</p>	 <p data-bbox="874 1164 1276 1189">출처:철원군청 - 철원한탄강 겨울여행-문화관광</p>

과거 철원의 관광은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오직 분단의 긴장감과 전쟁의 참혹함을 전달하는 ‘안보 관광’에 철저히 국한되어 있었다. 제2땅굴을 탐험하거나, 무너진 철원역 터와 노동당사를 둘러보며, 삼엄한 경계 태세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이는 대중들에게 철원을 ‘위험하고 딱딱하며 삭막한 최전방 군사 도시’로 각인시키는 한계를 낳았다. 하지만 최근 철원은 이러한 낡은 프레임을 과감히 깨부수고, ‘생태’와 ‘평화’, 그리고 ‘인간의 치유’라는 문화적 가치를 융합하며 관광 패러다임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보안상 접근조차 금지되었었던 민통선 내부가 ‘DMZ 평화의 길’이라는 생태 탐방로로 개방되면서, 관광객들은 이제 총칼의 삼엄함 대신 70년간 봉인되어 있던 원시림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호흡하며 걷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일대 역시 주상절리길과 생태체험 모노레일 등 친환경 인프라와 결합하여 세계적인 평화와 생태 명소로 급부상 중이다.

철원 DMZ 생태와 관광에 대한 다른 지역 사람들의 시각 또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중들은 더이상 철원을 무섭거나 가기 꺼려지는 접경지가 아니라, ‘역사적 비극을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기적의 공간’으로 인식하며 감탄하곤 한다. 실제로 대중

들은 과거의 단체 시찰식 관광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연인 단위로 철원을 찾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철원의 정정한 대자연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보통 철원을 찾는 대부분의 외지인들은 인간의 이기심이 만든 분단의 선이 도리어 생명들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는 ‘신비로운 역설의 서사’를 기대하고 오며, 도심에서 지친 심신을 때 묻지 않은 순수자연 속에서 치유하고자 하는 명확한 기대감을 가지고 철원을 방문하고 있다.

<표1. 철원군 및 DMZ 접경지역 외지인 관광 실태 지표>

구 분	주요 통계 및 실태 지표
DMZ 방문 목적(복수응답)	자연경관 감상: 72.4% - 휴식 및 심신 치유(58.1%) - 역사 및 안보 교육(21.5%)
SNS 연관어 및 감성 분석	긍정 감성어 비율: 84.7% - 주요 키워드: 주상절리, 두루미, 힐링, 평화, 은하수교
관광객 동반 형태	가족 및 연인 중심 자유여행 2030 세대 유입률 14.8% 증가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태조사 및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빅데이터 재구성

이러한 외지인들의 인식 변화와 방문 실태는 실제 정부 기관의 통계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입증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접경지역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DMZ 일대 방문객들이 꼽은 주된 방문 목적은 ‘자연경관 감상(72.4%), 휴식 및 심신 치유(58.1%)’가 압도적인 상위를 차지한 반면, 과거 중심이었던 ‘역사와 안보교육’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철원군 관광 관련 소셜미디어 언급량 중 ‘안보,군사’프레임은 지워지고 ‘주상절리길’, ‘두루미’, ‘힐링’, ‘평화’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였으며, 방문객들의 긍정 감성어 비율이 84.7%에 달해 철원이 명실상부한 ‘역설적 힐링의 성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이 철원이 지닌 ‘분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태적 풍요와 생태체험’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성공적으로 치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대한 다른 근거로 포털사이트에 ‘철원 DMZ 관광’이라고 검색을 하면 ‘안보관광’이라는 검색어보다는 ‘평화생태관광’이라던지 ‘평화관광’, ‘생태관광’이라는 검색어가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18년 환경부에서 발행한 ‘철원 DMZ 철새도래지 등 6개 지역,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라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철원 외 5개 지역을 DMZ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주민소득 증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은 철원의 딱딱한 ‘안보관광’이라는 관광 프레임에서 ‘평화생태관광’으로의 프레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명한 지역 이용을 하는 지역발전 모델로서의 생태관광으로 철원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3. 철원 DMZ의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미래 비전

○ 철원 DMZ와 주민들의 상생,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

이러한 철원이 지닌 ‘분단 생태계’라는 독보적인 스토리를 지속 가능한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외지인의 관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상생 모델이 필수적이다.

철원이 지닌 ‘분단 생태계’라는 독보적인 스토리를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철원의 지역민들은 단순한 방관자나 관광업의 종사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었다. 주민들은 지역 단체, 생태 전문가들과 뜻을 모아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폐교된 양지초등학교 부지를 전면 리모델링하여 ‘DMZ 두루미 평화타운’이라는 생태 거점 법인이자 재단을 설립해 냈다. 주민들은 이 재단을 통해 철원 두루미 서식지를 직접 보존하는 연구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 중이며, 철원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이용하는 법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도형 축제인 ‘철원 DMZ 두루미 생태마당’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행정 축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최전방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몸소 실천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생태 보전이 규제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관광 산업 활성화와 특산물 판매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의 혜택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직접 증명해 내고 있다.

나아가 철원 지역민들은 무분별한 개발이나 화려한 대형 건축물 조성이 도리어 70년간 지켜온 철원의 청정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엄격히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계획하는 미래 비전은 상업적 관광지 개발이 아니었다. 철원의 미래는 주민들이 가꾸어 온 자연환경을 전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공유하는 ‘인류학적 생태 교육의 장’이자, 전 세계 분단·환경학자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학술 연구의 거점’으로 철원

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생태 보전과 주민의 삶이 완벽히 공존하는 이 모델을 통해, 철원은 전 세계에 공존의 미래를 제시하는 메카가 될 예정이다.



이러한 철원 DMZ 생태환경과 철원 지역주민들이 공생하며 DMZ를 이용한 철원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태 보전이 지역 경제 혜택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시설물들이 오히려 생태계 서식지를 파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철원의 미래 비전은 외형적인 화려함과 관광객의 유치만이 답이 아닌, 철원 지역 주민들이 70년간 지켜온 습지 생태계 본연을 유지하며, 이를 자연을 다른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인류학적 교육과 학술 연구의 장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철원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 나아가 국제적으로 공존의 미래를 여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 **철원 DMZ와 주민들의 공생을 위한, 철원 주민들의 농업 환경**

철원 주민들이 DMZ라는 특수한 접경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과 엮어낸 생업 양식은, 인간과 생태계가 어떻게 공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철원의 농업 환경은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민통선 북방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오염원이 원천 차단된 DMZ비무장지대 발 청정 현무암 암반수를 농수로 활용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청정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기 위해 철원의 농민들은 스스로 과도한 화학 자재 사용을 지양하고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 친환경 유기농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였다. 주민들의 이러한 생태적 실천은 단순히 자연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을 수확 후 일부로 낙곡을 남겨두거나 논에 물을 빼지 않고 채워두는 ‘겨울철 무논

조성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 무논은 추운 겨울에도 쉽게 얼지 않아 천적의 공격을 피해야 하는 전 세계 희귀 조류인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안전한 겨울철 잠자리와 먹이 터가 되어주었다.

오염에 극도로 민감한 환경지표종인 두루미 떼가 매년 대규모로 찾아와 머문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철원 농업 환경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가 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며 철원의 대표 자산인 '철원 오대쌀'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프리미엄 생태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철원 주민들이 분단의 제약 속에서 선택한 친환경 농업 환경과 생태적 공생을 위한 노력은, DMZ의 청정 자연을 보존하는 동시에 농가의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이라는 경제적 보상으로 되돌아오는 한반도 유일의 역설적 공생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Ⅲ.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철원의 가치와 공생의 미래

대한민국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비극적인 분단국가이며, 그중에서도 강원도 철원은 가장 치열하고 처절했던 격전의 기억과 1930년대 강원도 4대 도시로서 번영했던 과거가 한순간에 지워진 깊은 아픔을 간직한 역사의 산증인이다.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간 자리는 오랫동안 차갑고 삭막한 단절의 공간으로 방치되는 듯했다. 그러나 인간의 간섭이 철저히 배제된 채 흘러간 70년의 시간 속에서, 그 잔혹했던 전쟁의 상흔과 상처는 역설적이게도 대자연 스스로가 치유해 낸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회복의 현장으로 거듭났다.

과거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분단의 선은 도리어 문명의 파괴적 개발로부터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 생물들을 지켜내는 지구상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등 세계적인 희귀 조류들이 매년 겨울 평화롭게 날아드는 철원 DMZ는, 분단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피어난 거대한 희망이자 인류학적·생태학적 가치를 지닌 위대한 생태계의 보고로 완벽히 재탄생했다.

현재 철원의 지역민들은 이 신비롭고도 숭고한 철원 DMZ의 역설적 서사를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미래 자산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주민들은 과거 관 주도의 일방적이고 경직된 안보 교육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DMZ 두루미 평화타운'이나 '두루미 생태마당'과 같은 주민 주도형 자발적 제단과 민·관·학 협의체를 성공적으로 조직해 냈다. 이를 통해 철원이 가진 독보적인 생태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상생의 모델을 실천하며, 철원을 세계적인 '평화·생태 관광의 중심지'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또한 철원지역 주민들은 '농업'분야에서 철원 DMZ의 생태계와 비옥한 땅을 활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철원오대쌀'과 같은 지역 특산물을 재배하며 삶을 이어가며 철원 DMZ와 함께 관광문화를 발전시키고, 농업과 같은 생업으로 이어나가는 등의 DMZ생태계와 인간이 공생해나가는 관계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하여 본 연구를 통해 생각한 철원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전쟁 유적을 전시하거나 분단의 긴장감을 체험하는 장소가 아닌, 단절과 고립이라는 절망의 세월을 생명과 평화의 긍정적인 가치로 승화시킨 '대자연의 위대한 복원력'과 그 자연을 보존하며 미래를 함께 가꾸어가는 '인간과의 아름다운 공생'에 있었다.

철원의 DMZ 생태계와 관광문화, 그리고 지역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철원의 미래는 일반 수도권 도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적이고도 무분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한 발전이 아니었다. 오히려 분단이 남긴 역설적인 아름다움과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바탕이 될 때, 철원은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실현하는 독보적인 지역으로 거듭나는데에 있는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V. 참고문헌

칼럼, 연구보고서

강원연구원 <DMZ, 세계적 명소화를 위한 연구>

<https://www.gi.re.kr/Home/H10000/H10100/pmsReportView?projcd=1009SU010&page=449>

국립문화유산연구원

file:///C:/Users/%EC%9C%A0%EC%88%98%EC%A4%80/Downloads/%EB%B9%84%EB%AC%B4%EC%9E%A5%EC%A7%80%EB%8C%80(DMZ)%EC%9D%98%20%EC%83%9D%ED%83%9C%EC%A0%81%20%EA%B0%80%EC%B9%98%EC%99%80%20%EA%B5%AD%EC%A0%9C%EC%9E%90%EC%97%B0%EB%B3%B4%ED%98%B8%EC%A7%80%EC%97%AD_%EC%A1%B0%EB%8F%84%EC%88%9C_2019.pdf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태조사 및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별 빅데이터 재구성>

보도자료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86457>

국회도서관 환경부 <철원 DMZ 철새도래지 등 6개 지역,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List.do>

SDG 뉴스 <주민이 주도한 생태복원-SDGs 실천 모델로 떠오르다>

<https://www.sd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059>

철원군 공식 홈페이지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https://www.cwg.go.kr/atc/index.do>

철원군 문화관광

<https://www.cwg.go.kr/tour/contents.do?key=653>